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Beautiful ONE" 을 꿈꾸는 원 미니스트리는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발달장애 사역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6-17).

이제 11월이 되어 한해를 뒤돌아보니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새로운 피조물' 다운 삶을 살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언제쯤이면 죄인의 성품을 벗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새롭게 변했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사도 바울의 변화된 관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즉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유대교의 배반자였고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해롭고 위험한 인물로 보고 제거하려 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구주로 알게 된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까지도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새롭게 변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다른 신자들이 예수님께 잡힌 바되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미 새롭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지만 새로워지고 있고, 이미 온전하지만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속'이라는 말을 각자의 삶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되찾으시고 회복하셔서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의도하신 존재로 만들어가시는데, 각자의 구속 이야기에서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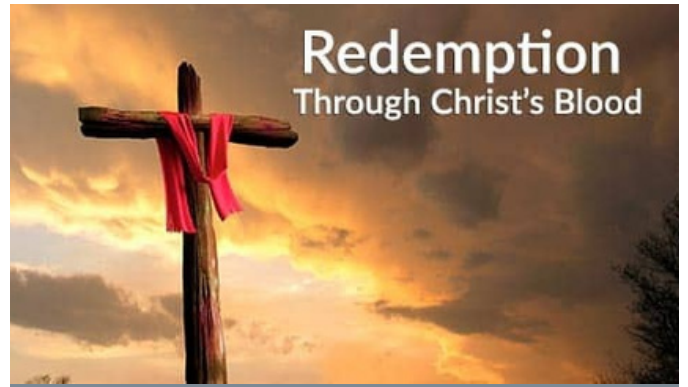
삶이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든 늘 평상시와 같든,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구속을 이루십니다. 결국 구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속 이야기를 쓰시고 우리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온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사람은 배우이다"

세상은 무대이며 모든 사람은 이 무대 위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인생은 연극처럼 여러 '장'과 '막'을 거치며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고, 갈등과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해진 무대와 역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말하는 것은 '구속'을 염두해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등장인물이기에 선택의 자유가 있고, 줄거리에 영향을 미칠 재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저자는 시종일관 하나님 이시기에 우리의 역할이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바울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부터 예수님을 본받게 하심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깨달았듯이 이 땅에서의 한평생은 이미 도달한 목적지로 여행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지만 지금도 새 사람답게 되어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구속되었지만,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구속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5년에도 예수님을 통해 이미 구속된 원미니스트리 가족들이 구속을 경험합니다. 그 구속은 고난과 은혜와 성장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WRITTEN BY
장진원 목사님

DAY PROGRAM 두드림



공받기 연습



스트레칭이 즐거운



나 어때요?



진우 어서 걸어라



북치는 지우



가을 크래프트



시원하면서 아픈표정



섬세한 붓터치



피자만들기

DAY PROGRAM 두드림



정연이 생일 축하



할렐루야데이 코스튬



너무 잘 어울린다



치즈케익 만들기



헤어컷 하는날



즐거운 음악시간



코리아패스티벌에서..

꿈글학교 가을학기



봉사자와 함께



봉사자와 함께2



봉사자와 함께3



봉사자와 함께4



미술시간



테트리스 하기



악기연주



악기연주2



오손도손 모여앉아

꿈글학교 가을학기



테트리스 하기



공 주고 받기



혜준 vs 하경



한국문화체험



북치기



쿠킹시간



주먹으로 전달하기

CONTRIBUTION



10월 후원자님

주영광교회 (\$100)
이동욱, 이희정 (\$50)
노영우, 노형숙 (\$50)
박영숙, 유재원 (\$50)
Michael Kim (\$500)
[사랑이네 치과]
곽공욱, 서귀애 (\$1000)
섬기는교회 (\$200)
호산나교회 (\$300)
Sally 성희 김 (\$2000)
[The Good Management]
김성락, 정진이 (\$50)
구자은 (\$100)
최경숙 (\$300)
장진원 (\$100)
Mankay Inc (\$100)
채정림 (\$60)
장응선 (\$100)

점심후원

10/29 이정연가정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원미니스트리는 조지아주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으로 기부하신 모든 금액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1. Check 우편 발송

*Payable to:

ONE Ministry Atlanta, Inc

*Send to:

302 Satellite Blvd. Suite #129

2. 계좌 입금 (Bank of America)

*Account #: 334061943445

*Routing #: 061000052

3. Zelle Transfer

온라인 은행 계좌에서

ONE Ministry Atlanta, Inc와

oneministryatlanta@gmail.com을

등록 후 송금.

ONE MINISTRY CENTER



MAIN MISSIONS

1. 예배 및 선교 사역

* 교회 장애인 부서 개설 및 장애 사역 지원

2. 교육 사역

* 원미니스트리 한글학교: **꿈글학교**

* Summer Camp

* After School Classes

3. 복지 사역

* 발달 장애 성인 데이 프로그램: **두드림**

Director: 장진원목사님

Open

Tue-Fri: 9 am-5 pm

Sat: 9 am-2:30 pm



302 Satellite Blvd #129

Suwanee, GA 30024



470-350-1094



info@one-ministry.com



facebook.com/1000770455929



www.one-ministry.org



oneministry.atl